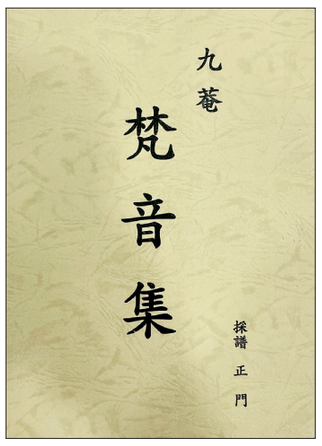
구암 스님 염불 채보한 〈범음집〉 발간

부산영산재보존회 교육교재 활용
〈영남범음범패집〉 소리기반 제작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 모집
9월8일 보존회서 개강, 2년 과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인 부산영산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7년 상반기 전통민속놀이마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음범패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부산영산재보존회가 발간한 〈범음집〉.

영남의 대표어장인 구암 스님(九菴, 1926~2002)의 염불을 채보한 악보집 〈범음집〉이 발간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는 그동안 구전으로 계승되어 온 구암 스님의 염불을 정리해 전통 범음범패 교재로 발간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는 "〈범음집〉을 교육기준으로 삼아 부산어산회의 맥을 잇고 체계적인 교육법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음집〉은 철저하게 구암 스님의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1996년 구암 스님이 부산 영남의 범패 보존을 위해 발매한 〈영남범음범패집〉을 토대로 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 총무 정문 스님은 "〈범음집〉 제작을 위해 구암 스님의 염불을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며 환희심이 났다"며 "구암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구암 스님은 당시 녹음테이프 20개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음반을 발표했다. 자료 정리에 10년, 녹음기간 1년, 편집기간에 2년이 걸렸다. 당시 범패를 녹음해 세상에 내보인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구암 스님은 소리로 전하고 마음으로 닦아 받아들인다는 '구전심수(口傳心修)의 수행자'로 불렸다. 1936년 11세에 부산 기장 일광포교당에서 인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8·15 광복 이후 통도사 강원에 입학해 범음범패를 배웠다. 1949년 통도사 강원 졸업 후 부산에서 조직된 '부산어산회'에서 재식과 범패를 재차 익혔다. 1972년에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용운 스님의 소리 제자가 되어 활동했다. 1973년 1월 용운 스님이 입적한 후 구암 스님과 혜륭 스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산재 의식절차를 정비했으며, 부산영산재는 1993년 4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다. 구암 스님은 (사)부산영산재보존회를 창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앞장섰다.

구암 스님이 〈영남범음범패집〉을 발매한 후 국립부산국악원은 범음범패의 가치를 인정해 예술자료집 〈부산영산재中 영산작법〉을 발표했다. 아울러 영산작법 29곡을 CD로 제작한 후 음원 전체를 악보화 했다. 하지만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전통 염불 소리를 서양음악 체계 음표로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총무 정문 스님을 중심으로 전통불교 염불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4성에 맞춘 계단식 표기법을 활용해 〈범음집〉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범음집〉을 완성했다.

〈범음집〉에는 '팔금강사보살', '삼신이운', '대령', '관욕', '소청상위', '소청중위' 등 실제 의식에서 활용하는 범패를 우선적으로 담았다.

정문 스님은 "영산작법은 현재 정리중이다. 내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며 "책이 나올 때까지 감수해준 사무국장 성림 스님과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영남불교예술대학 의식교육 2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의식 의례를 수학하는 의식 기초반 및 의식 전문반과 작법무반 그리고 국악기반이다. 의식 기초반은 조석예불 및 불공에 대해 기초 이론과 실기를 위주로 수업한다. 의식전문반은 범음 범패에 필요한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등 사찰 행사에서 필요한 의식을 전문적으로 수업하고 범음 범패 30여 곡을 지도한다. 작법무반은 바라 및 나비 등 작법무를 배울 수 있으며 불교무용단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는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 국악기반에서는 태평소와 대금 등으로 연주하는 영산회상, 청성곡 등을 배울 수 있다.

영남불교예술대학 개강은 9월 8일 오후 2시이며 강의 장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이다. 수강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해 매달 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051)327-5095

부산 천불정사 백중 자비 나눔

지역인재불사 도량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백중 회향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천불정사는 8월 24일 금정구청에 성금 3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전달했다. 백미는 금정구 장전 2동 복지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며 성금은 불우이웃에게 전달한다.

주지 고담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범성 법사는 "백중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어제 부산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천불정사는 매년 백중 및 생전예수재 등을 회향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는 8월 24일 금정구청에서 성금 300만 원과 백미 20kg 50포대 총 1000kg을 전달했다.

자비 방생으로 코로나 종식 기원

쌍계사,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 봉행



쌍계총림 쌍계사가 8월 24일 경내 팔영루에서 '불기2565년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를 개최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8월 24일 경내 팔영루에서 '불기2565년 자비방생법회 및 임회'를 봉행했다.

쌍계사는 태풍 및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법회로만 자비방생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함께 기원했다.

법회에는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방생축원문과 대회사 및 표창장 수여,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 이암 스님은 "방생법회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불살생계를 실천하고 찬양하는 행사이다"며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큰스님의 뜻이 담긴 행사로 우리 교구의 자랑이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앞으로도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방생법회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쌍계사의 발전을 위해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계사 자비방생대법회는 매년 경남 고성군 당항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입적한 고산 대선사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한편, 쌍계사는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임회를 진행했다. 논의 주제는 육조혜능조사 열반다례와 개산·창건 기념 대축제, 다맥 전수식 등이다. 올해 육조혜능조사 열반다례는 9월 9일 금당에서 개최된다. 개산 및 창건 기념대축제는 10월 8일~14일 동안 쌍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영남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및 학술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어사, 선지식 초청 백중기도 회향

8월 25일 설법전서 3개월 기도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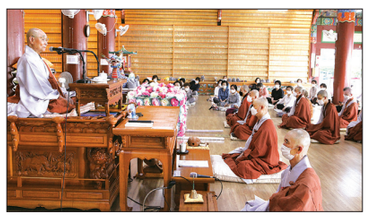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8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는 지장기도와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 주지 경선 스님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대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지유 스님은 "백중은 불보살에게 100가지의 음식을 올리며 공양한다고 해서 백종이라고도 불린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공덕을 쌓아 수행 정진하는 기간"이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탐진치에서 해방되고 깨달음을 얻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3개월 동안 열네 분의 선사 스님들이 매주 법문을 설했고 설법전에서는 지장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선망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새롭게 신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자들이 설법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밖에서 회향을 맞아 안타깝다. 열었던 문화행사도 멈춰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특히나 무더웠던 이번 여름을 이겨내고 기도했던 그 열정으로 앞으로도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8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하고 선지식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해왔다. 그 동안 기도 회향법회에서는 대중 3000여명이 운집하는 불교문화행사를 열어 새로운 백중문화를 보여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혜원정사 마애약사불 점안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8월 25일 경내에서 '마애약사여래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주지 원허 스님과,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진주 보광사 주지 현도 스님, 쌍계총림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인호 스님, 서보석 혜원정사 신도회장이 동참했다.

혜원정사는 불사 회향을 알리며 김환열 보광석재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인사말에서 주지 원허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을 뵈며 기도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혜원정사가 8월 25일 경내에서 '마애약사여래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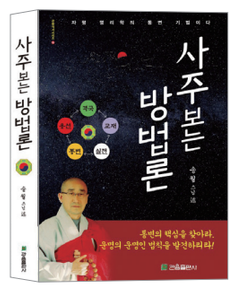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자평 명리학의 통변 기법이다

화제의 신간

사주보는 방법론



통변의 핵심을 찾아라.
운명의 운명인 법칙을 발견하리라!

이번에 내 놓은 "사주보는 방법론"은 실전에서 긴 세월 얻어진 경험과 선배 제현(先輩諸賢)들의 소중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무엇보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많은 실전 자료로서 폭 넓은 통변에 대한 핵심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사주를 보는데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알기 쉽게 요점을 간추려 보았다. 특히 십신과 육친 관계에서 고정화된 통변에서 벗어나 사주의 본의를 살려보려고 한 취지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 스님 述 / 신국판 / 408쪽 / 정가 35,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